

# 근대기 骨灰의 재료 변용과 배경

임슬령\*

- I. 머리말
- II. 골회의 용례와 구성재료 변화
  - 1. 칠기 제작에 소용된 골회
  - 2. 근대기 기록된 골회의 재료 변화
- III. 골회의 재료 특성과 근대적 변용
  - 1. 골회의 재료와 수급체계
  - 2. 나전칠기 제작기술과 골회
  - 3. 근대기 무형문화재의 활동
- IV. 맺음말

## I. 머리말

‘骨灰’란 漆, 布와 함께 칠기(漆器) 제작에 소용되는 주재료이다. 골회의 역할은 나무 백골의 흠을 감추며, 기물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감싼 布面을 고르게 덮고, 器面을 장식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바탕면을 만든다. 칠기 제작에 골회가 사용된 역사는 출토유물과 전세품의 과학적 분석 연구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삼국시대 유물로 밝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유산융합학과 박사과정(Ph.D.stud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혀진 원주 법천리 백제고분 출토 주칠문양칠배의 칠층 분석에서 칼슘(Ca)과 인(P)의 검출로 골회의 용례가 파악되며,<sup>2</sup>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칠기에서도 골분층이 분석된 바 있다.<sup>3</sup> 특히,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칠장(漆匠)이 칠기의 조성에 골회를 보편적으로 적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도 상당수 남아있다.

그러나 근대기부터는 칠기의 제작 재료로 골회(뼈를 태운 재)를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에서 전통문화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조사보고서와 기록도서에도 고래(골회)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뼈를 태운 재의 용례는 확인할 수 없다. 조선 후기 이후 골회의 호칭은 전승되면서 구성 재료가 변화한 것인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 공백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칠장의 골회가 근현대 칠기를 제작하는 무형문화재의 고래로 구성재료가 변화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예품의 재료는 기물을 제작하는 장인이 구성하며, 구성 재료를 취택하는 기준은 장인이 활동하는 사회적 배경과 상호 유기성을 갖는다. 따라서 칠기의 주재료인 골회의 변용에 대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칠기를 제작하는 재료과 장인이 기술을 발휘하던 환경을 아울러 검토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칠기에 대한 과학적 조사자료와 문헌기록을 통해 칠기의 제작에 골회가 소용되었던 사례와 근대기에 골회의 구성재료가 분화되는 양상을 정리해볼 것이다. 이어서 조선시대 칠장의 골회와 근현대 칠기를 제작하는 무형문화재가 사용하는 고래의 재료별 실험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여, 근대기 전후로 골회의 구성재료가 변용된 요인을 사회적 배경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한다.

1 최석찬·김선덕·이용희·고수린·함승욱, 「조선시대 칠도막 분석연구」, 『보존과학회지』 27 (2011), pp. 371-380; 이용희, 「조선시대 나전칠기 수리」, 『보존과학회지』 5 (1996), pp. 25-34; 김경수·유혜선·이용희, 「낙랑칠기의 칠기법 조사(I)」, 『박물관보존과학』 4 (2003), pp. 79-88; 岡田文男, 『古代出土漆器の研究 - 顕微鏡で調る材質と技法』(京都書院, 1995), pp. 109-143, 156-159.

2 이용희·서정호, 「高麗時代以前 제작된 出土 古代漆器의 漆技法 研究」, 『문화사학』 33 (2010); (주)씨엔티경답연구소, 「경주탑동 849-16번지 출토 칠기 보존처리 보고서」, 「경주탑동 849-16번지 유적」(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pp. 130-135.

3 박정혜·이용희, 「고려시대 칠기에 나타난 모금기법 연구」, 『박물관보존과학』 14 (2013), pp. 61-67.

## II. 골회의 용례와 구성재료 변화

### 1. 칠기 제작에 소용된 골회

칠기 제작과정에서 골회는 옷칠과 혼합하여 器面위에 자개 등의 장식재를 부착하기 전 후 쓰인다. 골회는 나무 백골의 흠이나 기물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감싼 布面을 고르게 덮고(도 1, 2), 기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바탕층을 만들며 나전 장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도 3). 한국 칠기의 바탕층을 형성하는데 소용되었던 재료들은 출토칠기 및 전세칠기의 과학적 분석연구 자료를 통해 옷칠과 혼합된 골분, 토분, 목탄분 등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표 1). 칠기의 제작에 골회가 사용된 역사는 원주 법천리 백제고분, 익산 미륵사지, 경주 방내리 고분 출토 칠기의 칠층 성분 분석에서 갈슈과 인의 검출로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sup>4</sup> 현재까지 축적된 분석 사례로 칠기의 바탕층 형성에 토분이 대부분 혼합하여 활용되었고, 골회의 용례가 조선시대로 갈수록 용례가 많아진 점이 관찰된다. 골회는 옷칠과 혼합되어 바탕층(漆層)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재료 중 하나이지만, 골회(骨灰)를 사용하지 않아도 칠기의 바탕층을 형성하는 작업 단계를 골회로 지칭하여 서술된 연구 자료가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의 ‘골회’는 칠기 제작에서 옷칠과 혼합되어 바탕층(漆層)을 형성하는 단일 재료(뼈를 태운 재)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도1 백골 흠 메우기



도2 베(布) 눈 메우기



도3 자개 단층면 메우기

<sup>4</sup> 이용희·서정호, 앞의 논문; (주)씨엔티 경담연구소, 앞의 책, pp.130-135.

〈 표 1 〉 한국 출토칠기 및 전세칠기 漆層(바탕층) 분석 사례

연구자료				
시대	자료명	유물명	바탕층	
삼국	백제	능산리유적 칠도막편	토분+목탄분	
		능산리유적 주칠목편	토분+목탄분	
		능산리유적 칠기편	토분+목탄분	
		능산리유적 선문양칠편	토분+목탄분	
	신라	「高麗時代以前 제작된 出土古代漆器의 漆技法研究」	원주 법천리 백제고분 출토 주칠문양 칠배	토분+골분
			익산미륵사지 칠기단지	골분
통일신라	「수침칠기의 보존」	경주안압지 출토 대접형 칠기	토분	
		경주안압지 주칠칠합편	목탄분	
	「우리나라 고대칠기의 칠기법 연구」	익산미륵사지 칠기단지	골분	
		경주안압지 칠기대접	토분+골분	
		경주안압지 화형칠기	토분+골분	
고려	전기	「해인사 희랑대사상의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해인사 희랑대사상	토분
	-	「고려시대 칠기에 나타난 모금기법 연구」	칠 장식귀 칠편	토분+골분 <sup>5</sup>
	-	「고려나전향상과 동아시아 칠기」	포류수금문나전모금향상	골분 <sup>6</sup>
	-	「나전대모칠기에 나타나는 칠도막의 특성」	나전대모봉황문상자 I, II	목탄분
	-	「고려시대 목심칠기의 제작기법 연구」	화장용 칠기합(본관 10042)	골분 <sup>7</sup>
			칠제합(덕수 4123), 칠제배(덕수 4124)	골회, 골분 <sup>8</sup>
			칠제합(덕수 4190)	골분 <sup>9</sup>
후기	「심향사 극락전 협저 아미타불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심향사 건칠불상	골분	
조선	1616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상자의 재질분석과 보존처리」	조선왕조실록상자(고적 25247)	토분, 골분 <sup>10</sup>
	-	「조선왕조 실록함의 수리복원」	실록함(K976)	골분, 토분 <sup>11</sup>
	후기	「조선시대 칠도막 분석 연구」	漆槍, 漆几杖, 漆櫃, 모란문 나전칠기 사각함	토분+골분

문헌에서는 조선시대 칠장(漆匠)이 골회를 칠기 제작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도 상당수 남아있다. 조선시대 칠기의 제작에 골회를 사용한 기록은 법제서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등의 왕실자료 곳곳에서 보이며, 문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제서 『新補受教輯錄』, 『續大典』, 『秋官志』, 『大典通編』, 『大典會通』, 『增補典錄通考』, 『典律通補』에서는 도감에서 만드는 제상과 향탁(床卓) 등의 물품에 골회가 많이 쓰이므로 현방(屠肆) 5곳의 설치를 허락한다는 규율이 기록되어있다.

“국상의 장례 전에, 도감이 마련하는 제상과 향상 등의 물건은 다수 골회를 사용한다. 현방 5 곳을 설치하도록 허락했다.”<sup>13</sup>

『續大典』,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1746年 편찬

사료에서 도감(都監)은 국가에 중대사를 관장하게 할 목적으로 둔 임시 관아(官衙)로써, 국장(國葬)을 치르며 제례에 이용되는 각종 기물들의 제작에 소요되는 골회를 거두어간 정황을 읽을 수 있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법제서와 같이 도감에서 물건 등을 만드는데 골회를 써야 하므로 현방(屠肆) 설치를 허가하겠다는 계사(啓辭)와 국상(國恤)이므로 엄히 소도축(屠牛)을 금지하기를 청하는 사간원(司諫院)의 계사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sup>14</sup> 법제서와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흉례(凶禮) 시 골회의 용례를 주로 다루고 있고, 의궤에서는 복위(復位), 상호(上號), 부모(耐廟), 책례(冊禮), 추송(追崇), 녹훈(錄勳),

5 박정혜·이용희, 앞의 논문, pp.61-67.

6 이용희, 「고려시대 포류수금문나전모금향상의 현황, 재질 및 제작기법」, 『고려나전향상과 동아시아 칠기』, (한국미술연구소CAS, 2014), p.215.

7 이용희·박수진·윤은영·정혜진, 「고려시대 목심칠기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보존과학』 제15집 (국립중앙박물관, 2014), p.87.

8 이용희·박수진·윤은영·정혜진, 앞의 논문, p.88.

9 이용희·박수진·윤은영·정혜진, 앞의 논문, p.90.

10 박수진·정다운·이용희, 「조선왕조실록상자의 재질분석과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제33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7), p.19.

11 이용희·박정혜·박수진, 「조선왕조 실록함의 수리복원」, 『박물관보존과학』 제15집 (국립중앙박물관, 2014), p.129.

12 『增補典錄通考』, 禮典, 雜令, 《新補受教》“國恤時, 都監所用床·卓等物中, 骨灰者, 亦多, 依前例, 屠肆五許設。”

13 『續大典』,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國恤因山前, 都監床卓等物, 多用骨灰, 屠肆五坐, 許設。”

14 『승정원일기』400책, 숙종 27년(1701년) 9월 20일 갑진 6/6 기사; 『승정원일기』524책, 경종 즉위년(1720년) 7월 16일 신사 11/28 기사; 『승정원일기』574책, 영조 즉위년(1724년) 9월 25일 을축 37/51 기사; 『현종개수실록』28권, 현종 15년(1674년) 4월 3일 丁酉 1번째기사.

찬수(纂修), 빈례(賓禮), 가례(嘉禮) 등 폭넓고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의궤 속 골회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베이스(Data Base)로 정리된 기록에 한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1326건,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의궤 1729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의궤 422건이 조회된다. 의궤 기록의 대다수는 칠장(漆匠)이 골회를 사용(所用)한 기록과 상탁과 궤함 등의 칠기에 골회가 쓰였던(所入) 내용이다.

“…一爲行下事漆匠所用骨灰再鍊次馬尾細篩一用後還下次以該司良中進排事捧甘爲只爲堂上手決內依…”

『肅宗王世子册禮都監儀軌』, 一房所掌 -丙午二月初七日

“…朱紅畫金內函一部所入 柏子板半立魚膠四兩 太末四升白苧布十尺 骨灰一斗炭五升 每漆三合全漆六合… 黑漆外櫃一部所入 柏子板一立魚膠八兩 白苧布十一尺 骨灰一斗 炭灰五升 全漆八合 每漆五合白綾花五張 膠末五合太末二升 松脂十兩正鐵三斤…”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三房儀軌 -戊寅十一月初九日

이 외에는 기물에 칠할 때 소용(所用)되는 골회를 진배(進排)하는 일,<sup>15</sup> 도감에서 소용되는 골회를 마련하는 고충,<sup>16</sup> 골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전소함 조성이 어려움 등의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sup>17</sup> 사료를 통해 의례용 상탁 및 궤함 등을 칠하는데 소용되는 재료를 칠장에게 배급하였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당시에 옷칠은 생산을 전담하는 칠전(漆田)의 설치로 국가에서 관리하였으며, 나전칠기의 재료인 전복과 대모는 각 군현 생산지에서 공물로 진상되었

<sup>15</sup>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三房玉册色, 十月十三日 “右甘結寶朱紅排案及着漆時所用骨灰急急進排事漢城府”

<sup>16</sup>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漢城府爲相考事節到付都監甘結據骨灰一斗八升分定於五部爲有如乎部官等牒呈內屠牛禁令今已三年同骨灰雖日三督徵於坊民爲良置無路覓納是如爲乎於泮村雖有潛爲屠牛之事而泮村屠牛主人等捉來徵督爲良置亦無收合之路是如爲臥乎所雖不得新骨收合舊骨猶可作灰收合取用而纔因旱災川渠修築污穢之物一一埋置之故近間道路上所見果無一骨所棄之處則其爲難得實如部官等所報事甚悶慮是乎矣他無變通之路使之督納爲如乎”

<sup>17</sup> 『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 戶曹 長興庫, “一本房所掌退壤埋安各樣櫃函, 取考膽錄, 則以純漆着漆是旣, 梳函則以螺鈿造成, 故若不用骨灰, 則難以造成是如, 梳函分叱, 用骨灰爲遣, 其餘櫃函段, 以純漆取用爲有置, 依此爲之, 何如? 稟手決內, 依.”

다.<sup>18</sup> 칠기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수납일체를 나라에서 전적으로 관함하였고,<sup>19</sup> 제작도 경공장 소속의 나전장과 칠장이 전담하였다는 사실은 칠기의 조성이 왕실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왕실 중심으로 칠기를 조성함에 따라 칠장도 관영수급체계에서 배급받은 골회를 주로 사용하였을 배경이 인과적으로 추론된다.

조선시대 문집에서 골회의 용례는 상장례(喪葬禮) 시 목관을 漆하는 치관(治棺)에 관한 규범에서 등장한다. 당시 사가(士家)의 의례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간으로 하는 예가 존중되고 있었다.<sup>20</sup> 주자가례 총 7권 중 상례에 대한 분량은 4·6권으로, 장례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상장례의 관과 곽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조상의 살아생전에 조성하는 것이 효자의 도리로 여겼고, 먼저 조성한 간은 1년에 1번씩 관에 漆을 올렸다. 관에 칠을 하는 이유는 관의 결구 사이의 틈을 메우고 나무를 견고하게 하며 갈라지지 않게 하면서 개미와 같은 벌레의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관 안쪽에 칠하기 위한 재료로 옷(漆), 밀랍(蠟), 송진(松脂, 瀝靑)을 함께 사용하나 관 내부에 옷칠을 할 경우 밀랍과 송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관 밖에 검게 옷칠하는 것은 관의 겉모습 미관을 위한 것으로 칠하지 않아도 되었다.<sup>21</sup>

문집 속 상장례에 언급된 골회의 용례를 통해 저술 당시 어떤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문집에서는 골회가 회칠과 관련하여 서술되며, ‘골회’를 ‘회칠(灰漆)’보다 더 작은 범위의 개념으로 이해했고, 漆工이 골회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파악된다.<sup>22</sup> 퇴계 이황의 문집 『퇴계집』의 治棺 조목에서 “안과 밖 전부 회칠한다. 회가 어떤 회인지 알지 못한다. 아마 골회인 듯하다.”라고 설명하며, ‘골회’를 회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sup>23</sup> 김장생의 『사계전서』도 ‘회칠에 회(灰)는 골회이다.’로 기록하고,<sup>24</sup> 강석기의 『月塘先生別集』에서는 棺의 안과 밖에 전부 사용하는 회칠의 회를 골회로 답하고 있으며,<sup>25</sup> 박태한의 『朴正字遺

18 朴一源, 『度支志』外篇, 卷 67, 『經費司五禮部5』‘嘉禮條’, (법제처, 1977); pp. 182-237; 『萬機要覽』, ‘年例方物條’, 『영실록』, 89권, 영조 33년(1757년) 6월 20일 경진 3번째 기사; 『선조실록』, 선조 20년(1589) 정월 경인조 등 참조. “재료인 칠과 자개 자체가 매우 희귀하고 제작공정이 까다로워 전량 국가가 관장하였고 그 제작은 경공장만이 하였다.”

19 최공호, 『한국근대나전칠기 연구』, 『미술사학회연구』 177 (1988), p. 44.

20 이선아, 『인조·효종의 국장과 국장 의례』, 『외규장각 의례 연구: 흥례 II』 (국립중앙박물관, 2018), 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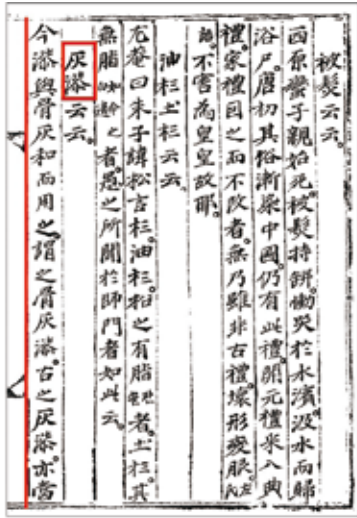
21 이현채, 『조선시대 목관의 연륜연대와 치장·치관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임산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p. 7-8.

22 본 논문에서는 목관에 漆하는 灰漆의 문헌 사례에 한정하여 참고하였다.

23 이황(1501-1570년), 『退溪先生續集』卷之六, 書, 答李斐彦問目, 家禮, “治棺條.七星板.用穿北斗形.何義.南斗司生.北斗司死者故也.內外皆用灰漆.未知此灰何灰.是乃骨灰.”

24 김장생(1548-1631년), 『사계전서』 제27권, 상례, 초종(初終).

25 강석기(1580-1643년), 『月塘先生別集』卷之一, 疑禮問解上, 喪禮, 治棺 “問.家禮治棺下註.內外皆用灰漆.所謂灰者.指何物耶.答.所謂灰者.疑是骨灰也.”



도 4 『靜坐窩集』卷之八, 書, 答樂賢家禮  
疑問, 丙子五月

稿』에서도 ‘회칠의 회는 골회다’라는 주를 달았다.<sup>26</sup> 골회를 회칠의 구성 재료로 설명하는 문맥으로 보아 골회가 회칠보다 작은 범위의 개념이자 회칠에 속하는 위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골회 개념의 범위는 문집의 지면 구성에서도 회칠이 대분류로 우측에 자리하고 골회에 대한 내용을 좌측의 소분류 위치로 구분한 기술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도 4).<sup>27</sup> 더하여 옷칠 공예 관련 유일한 고전 『휴식록(髣飾錄)』<sup>28</sup>에서 회칠과 골회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乾集」, 利用第一.

“흙을 두텁게 하는 것이 곧 ‘회’다. (회에는) 각(角), 골(骨), 조개, 석전(石甄: 단단한 돌기와) 및 배설(坯屑), 자설(磁屑), 숯가루 등이 있다. (흙은) 대화(大化: 큰 변화)의 으뜸이요 소모되지 않는 바탕이다. ‘황’은

두터움의 상징이니 곧 흙의 빛깔이다. ‘회칠’은 바탕을 두텁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물건은 불에 태우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능히 만물을 낳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게 한다. 회칠의 본체는 총론적으로 말하면 ‘흙의 이치를 따르는 것’과 같다.”<sup>29</sup>

<sup>26</sup> 박태한(1664-1698년), 『朴正字遺稿』卷之十四, 讀書筆記, 家禮, “上同註灰口.灰.骨灰也.”

<sup>27</sup> 류성룡(1542-1607년), 『西厓先生文集』卷之十三, 雜著, 喪葬質疑, 灰漆, “其法未詳.今之治棺者.但於入棺後.漆布塗棺外合木之縫而已.其內不用漆.且漆必經日乃凝.倉卒雖欲用之.恐勢有所不可.惟平時預作壽器者.乃可用.然禮文既云內外皆用灰漆.則必有其法.而特今人未講耳.且不知所謂灰者何物.今漆工用骨灰和漆.塗器物.甚滑澤.然棺中不宜用骨灰.疑是石灰.或蟹灰耳.當試用以驗其良否耳.更詳之.”

<sup>28</sup> 明代隆慶年間(1567-1572년)에 활동한 漆匠人 黃成에 의해 저작된 『髣飾錄』은 明天啓 5년(1625년) 동향이었던 楊明(1621-1627년)에 의해 주석되었다. 『휴식록』은 중국에서 嘉慶年間(1769-1820년) 이후 소실되었으며, 현재 遺存하는 ‘日本 東京国立博物館 所藏(兼葭堂本)髣飾錄’은 일본의 미술사가 오오무라세이가이(大村 西崖, おおむらせいがい, 1868년-1927년)가 收藏印을 근거로 그 유전을 밝히고 있다.

<sup>29</sup> 乾集, 利用第一, “土厚, 即灰, 有角骨蛤石甄及坯屑磁屑炭末之等, 大化之元, 不耗之質. 黃者, 厚也, 土色也. 灰漆以厚爲佳. 凡物燒之, 則皆歸土. 土能生百物, 而永不減. 灰漆之體, 總如率土然矣.”

「坤集」, 質法第十七.

“완칠(垸漆). 일명 ‘회칠(灰漆)’이다.

각회(角灰)나 자설(磁屑)을 사용하는 것이 최상이며, 골회(骨灰)나 합회(蛤灰)를 사용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치며, 전회(甄灰)나 배설(坏屑), 지회(砥灰)는 하등(下等)이다. 모두 다 체로 쳐서 가루로 만들고 거친 단계의 것, 중간 단계의 것, 가는 단계의 것을 차례로 ‘좌’(원서에 서 좌측 원문 第一次·第五次)와 같이 펴놓는다. 회가 다 만들어지거든 거기에서 조칠을 더한다.”<sup>30</sup>

黃大成(著)·揚明(注), 『髹飾錄』, 1567-1572年

乾集에서 회칠이 바탕을 두텁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였고, 坤集에서 회칠을 제작하는 여러 가지 재료 중 하나로 골회를 소개하였다. 휴식록의 지면 구성도 회칠이 대분류로 좌측에 자리하고 골회를 우측소분류 위치에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집 『西厓先生文集』, 『상변통고』, 『靜坐窩集』, 『勿巖先生文集』 등에서는 저술 당시 옷칠하는 장인이 골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인식도 파악된다.

### 회칠

【본주】안팎 모두 회칠을 한다. ○〈상대기〉: 대부(大夫)의 관 덮개(蓋)에는 옷칠을 하고 사(士)의 관 덮개에는 옷칠을 하지 않는다. 주: 개(蓋)는 관 위의 덮개이다. 칠(漆)은 임(任)으로 합쳐 봉합한 곳에 옷칠함을 말한다. 소: 사는 지위가 낮으므로 옷칠하지 않는다. ○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관의 안팎으로 모두 베를 사용하여 옷칠을 써서 견실하게 하도록 한다”고 했다. ○ 서애가 말했다. “지금 관을 다스리는 사람은 입관한 뒤에 옷칠한 베로 관 바깥의 나무가 합쳐지는 봉합부분에 바르고 말며, 그 안에는 옷칠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옷칠은 반드시 시일을 경과해야 응결되니, 창졸(倉卒)간에는 비록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아마 형편상 불가함이 있을 듯하다. 오직 평상시에 미리 수기(壽器)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에 이미 ‘안팎에 모두 회칠(灰漆)을 사용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 법도가 있을 것이나, 다만 지금 사람들이 강구하지 않을 뿐이다. 또한 이른바 회(灰)가 무슨 물건인지도 알지 못한다. 지금 옷칠하는 공인(漆工)은 골회(骨灰)를 써서 옷과 섞어 기물에 칠하는데

<sup>30</sup> 坤集, 質法第十七, “垸漆. 一名灰漆. 用角灰磁屑爲上, 骨灰蛤灰次之, 甄灰坏屑砥灰爲下. 皆篩過分, 粗·中·細, 而次第布之如左. 灰畢而加糲漆.”

매우 매끄럽고 윤기난다. 그러나 관 속에 골회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아마 석회(石灰)나 신희(蟹灰 조갯가루)인 듯하다.”<sup>31</sup>

유장원, 『상변통고』 제7권, 喪禮, 初終, 治棺

저자의 ‘지금 칠공(漆工)은 골회를 옷과 섞어 기물을 칠한다’는 표현에서 골회의 용법과 사례에 대한 인지도를 알 수 있다. 나아가 문집 『靜坐窩集』에서는 “회칠은 이와 같이 일컫는다. 지금은 칠과 골회를 섞어 사용한다. 골회칠이라 이른다. 옛날에는 회칠이다.”라고 설명하고,<sup>32</sup> 김룡의 『勿巖先生文集』에서는 “회칠, 지금의 골회와 같다.”는 표현이 있다.<sup>33</sup> 이와 같이 ‘회칠’의 한 종류였던 ‘골회’를 회칠의 대체어로 인지하게 되는 흐름에서 漆匠의 통상적인 골회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

## 2. 근대기 기록된 골회의 재료 변화

조선시대에 칠기는 왕실 가례의 혼례품, 지배층의 부장품, 중국 황실에 보내는 진헌방물 등 높은 가치의 공예품으로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제작하였다.<sup>34</sup> 조선왕실의궤에서 골회의 용례는 1605년 『扈聖宣武清難原從三功臣都監儀軌』부터 1928년 간행된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까지 꾸준히 보인다.<sup>35</sup> 왕실의 의례용 공예품 제작은 도설(圖說)의 형식을 빌어 마련한 제작 규범이 엄격하게 준용되었기에,<sup>36</sup> 의궤에서 기록된 골회는 실제 ‘소 뿔가루를 태운 재’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수공업은 이전의 관영체제가 무

<sup>31</sup> 유장원(1724-1796年), 『상변통고』 제7권, 喪禮, 初終, 治棺, “灰漆【本註】內外皆用灰漆。○〈喪大記〉：大夫蓋用漆，士蓋不用漆。註：蓋，棺上蓋。漆，謂漆其衿合縫處也。疏：士，卑，故不漆也。○劉氏曰：“棺內外，皆用布，裹漆，務令堅實”○西厓曰：“今之治棺者，入棺後，漆布，塗棺外合木之縫而已。其內不用漆，且漆必經日乃凝。倉卒，雖欲用之，恐勢有所不可。惟平時，預作壽器者，乃可用。然禮文既云，‘內外皆用灰漆。’則必有其法，而特今人未講耳。且不知所謂灰者，何物？今漆工，用骨灰，和漆，塗器物，甚滑澤。然棺中不宜用骨灰，疑是石灰，或蟹灰耳。”

<sup>32</sup> 심조(1694-1756年), 『靜坐窩先生集』卷之八, 書, 答樂賢家禮疑問, 丙子五月, “灰漆云云。今漆與骨灰和而用之。謂之骨灰漆。古之灰漆。亦當如此。”

<sup>33</sup> 김룡(1549-1593年), 『勿巖先生文集』卷之三, 家禮講錄, 喪禮, 初終, “灰漆。如今骨灰。”

<sup>34</sup> 註 19 참조.

<sup>35</sup>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正輦一坐修補所入(中略)骨灰太末各一升, 擔撻五巨里次生布十五疋, 紅木五疋”

<sup>36</sup> 『중종실록』중종 11년(1516) 11월 2일조; 『태조실록』, 태조 3년(1394) 1월 12일 및 같은 해 1월 15일 조 참조.

너지며 사용계층도 저변화되는 현상을 맞이하고,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면서 칠기 제작기술도 분화된다.<sup>37</sup>

근대기 칠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골회’의 구성성분이 변화된 첫 기록은 1929년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보고 제11회』, 「나전칠기개량시험」보고서이다.<sup>38</sup> 보고서의 요지는 조선 나전칠기 재래식 제법과 일본 나전칠기 내지식 제법을 비교하고, 중앙시험소에서 개발한 개량 제법의 제시였다. 중앙시험소에서 조사한 조선식 제법의 골회바르기 공정은 “3. 하지(下地)<sup>39</sup> : 패 붙이기가 끝나면, 송탄(松炭)의 미세분말을 교즙(膠汁)에 개어서 귀얄을 사용하여 하지를 만드는 炭粉과 膠의 혼합은 工人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또 계절에 의해서도 다른 하지는 1-2회에서 끝난다.”로 서술하였다. 보고서에서 소개한 조선식 제법에서 골회바르기의 구성재료는 목탄분과 아교로 변화를 보인다. 이 구성재료는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5집의 자개를 붙이고 옷칠하는 과정에서 설명된 제법이다. “근래 자개가 묻히도록 바르는 공정은 경비절감을 위해 송탄가루를 아교로 버무려 바르기도 하고 아예 호분을 버무려 3번쯤 바른다. (중략) 이러한 대체 방법들은 나전칠기 본연의 것이 아니며 저렴한 상품을 제작하는 편법에 불과하다.” 송주안 장인의 의견을 참고하면 1920년대 산업적으로 변용된 나전칠기 제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듬해, 1930년 발행된 신문기사에는 통영에서 조선칠공사를 운영하였던 강기홍이 소개한 나전칠기 제작방식이 게재되어있다.<sup>40</sup>

“…前記漆板에 位直를 定하여 附着하고 또 다시 生漆을 塗付乾燥하여 骨灰粉은 木炭粉을 生漆에 混合한 것을 塗付乾燥하고(은 二同塗付) 그다음 漆板을 平…”

『동아일보』, 「내고장 名産 朝鮮美術의 精萃 螺鈿漆器」, 1930. 10. 30.

<sup>37</sup> 19세기 초의 일부 기록에 나전칠기 산지로 통영이 언급되는데 이는 곧 관영수공업의 사영화, 지방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서유구, 『임원경제지』, 「贍用志」권3, 「櫛總諸器, 梳甲條」;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나전변증설」;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八道物産條」 등 참조.

<sup>38</sup>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螺鈿漆器改良試驗」,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第11回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29), p. 16-19.

<sup>39</sup> 일본에서 칠기의 바탕칠(층)을 지칭하는 용어.

<sup>40</sup> 『동아일보』, 「내고장 名産 朝鮮美術의 精萃 螺鈿漆器」, 1930년 10월 30일 기사.

신문기사를 통해 1930년까지 칠기의 바탕층을 형성하는 공정에서 ‘骨灰’라는 용어가 전수되었지만, 구성재료가 목탄분과 생칠의 혼합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기사에서 강기홍은 1927년 8월 통영나전칠기 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sup>41</sup> 그러나 연구회의 총회에서 의결이후에 기록의 부재로 골회의 재료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방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통 칠기의 명맥은 근근히 이어지다가, 1962년 전통문화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1965년부터는 칠기를 제작하는 무형문화재의 조사보고서 및 기록도서가 발행되어 골회바르기(바탕칠) 공정과 재료가 확인된다(표 2).<sup>42</sup> 보고서에서 골회는 역할이 동일하지만, 용어가 구전되었기 때문인지 발음이 유사한 ‘고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래 외에도 ‘골회, 사비, 칠고래, 회칠, 칠골회, 칠죽, 토회칠’ 등으로 비슷하게 분화되었다. 골회바르기 공정에서 용어는 유사하게 전승되고 있으나, 골회의 재료인 뽕가루를 태운 재를 사용하는 제법은 사라지고, 토분과 옷을 섞는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골회와 고래가 재료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뽕가루를 태운 재를 ‘골회’로 한정하고, 무형문화재가 골회 이외 토분, (목)탄분 등을 옷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칠을 ‘고래’로 구분하여 서술하겠다.

41 『동아일보』 1927년 2월 9일 기사; 『동아일보』 1928년 2월 22일 기사; 『동아일보』 1928년 8월 24일 기사; 『동아일보』 1928년 11월 8일 기사.

42 무형문화재마다 칠기를 제작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바탕층을 형성하는 ‘골회’로 판단하는 기준은 (나무)백골에 포(布)를 감싼 이후, 바탕층을 연마하기 이전, 옷칠과 분말을 섞은 물질으로 漆層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하였다.

43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문화재관리국, 1965), pp. 527-528.

44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4(문화재관리국, 1972), p. 555.

45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5(문화재관리국, 1978), pp. 895-897.

46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1(문화재관리국, 1992), pp. 442-443.

47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2(문화재관리국, 1998), pp. 92-93.

48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1998), pp. 571-572.

49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4(문화재관리국, 1998), p. 631.

50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1998), pp. 648-649.

〈 표 2 〉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기록도서의 바탕칠(골회바르기) 용례

발행년	자료명	조사대상	바탕칠 명칭	구성 재료
1965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집	제11호 '나전칠기장'	고래	토분+옷+풀 <sup>53</sup>
1972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14집	제104호 '끓음질'	고래	토분+옷+풀 <sup>44</sup>
197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15집	제126호 '나전장'(中끓음질)	풀칠, 옷칠	숫가루+부레풀, 옷칠 <sup>45</sup>
1992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1집	제195호 '나전장'	고래	토분+옷+풀 <sup>46</sup>
199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2집	제198호 '칠기능'	사비	황토+옷 <sup>47</sup>
199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2집	제205호 '나전칠기제작기능'	칠고래	토분+옷+풀
199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2집	제206호 '나전칠기제작기능'	고래	와분+옷+몰 <sup>48</sup>
199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4집	제229호 '칠장'	골회	탄분+옷+참쌀가루 <sup>49</sup>
199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4집	제229호 '칠장'	회칠, 칠골회	토분+옷 <sup>50</sup>
2006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0호 '나전장'끓음질보유자	칠죽	토분+옷 <sup>51</sup>
2006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0호 '나전장'주름질보유자	토회칠	토분+옷 <sup>52</sup>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칠기의 바탕층 분석 자료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의 기록을 통해 골회는 근대기를 거치며 이름만 비슷하게 남고 구성재료가 변화된 점이 파악된다. 가장 이른 시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봉룡 장인은 나전칠기의 제작에서 골회의 구성 재료 변화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담고 있다. 바탕칠인 고래를 황토가루와 생칠과 풀의 배합으로 사용하며, 옛날에는 황토가루 대신 뽕가루(骨粉)을 황토가루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썼고 中年에는 숫가루(灰粉)를 썼다고 한다. 전통을 전승하는 무형문화재 장인도 골회 재료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언제 어떠한 연유로 골회의 재료를 변용하고, 고래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선시대 칠장의 골회에서 근현대 칠기를 제작하는 무형문화재가 사용하는 고래로 구성재료가 변용된 요인을 재료별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함께 검토하여 이해해 보겠다.

<sup>51</sup>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민속원, 2006), pp. 83-88.

<sup>52</sup>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6), pp. 116-120.

### III. 골회의 재료 특성과 근대적 변용

#### 1. 골회의 재료와 수급체계

한국 출토칠기 및 전세칠기의 과학적 연구 자료에서 칼슘과 인의 성분 파악으로 골회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그러나 기존의 칠기 유물에 대한 분석조사가 성분 파악을 통한 골회(골분) 여부의 확인에 머물렀고, 어떤 동물의 뼈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현재까지 「나말여초 건칠불상의 제작기법과 시원 연구」 논문에서 프리어(Freer Gallery of Art) 소장 건칠불의 바탕칠층 구성물질을 소뼈로 확인한 연구가 유일하다.<sup>53</sup>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법제서, 의궤, 실록, 승정원일기, 문집<sup>54</sup> 등의 문헌기록을 통하여 漆匠이 골회를 수급받았던 체계구조와 골회의 재료를 밝혀볼 수 있었다. 우선 법제서에서는 골회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하고 사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국상 시도감 소용 제상과 향상 등의 물건 중 골회를 사용한 것은 또한 많다. 전례에 의거하여 현방 5곳의 설치를 허락하였다.”<sup>55</sup>

『新補受教輯錄』, 禮典, 雜令, [國恤時, 都監所用...], 1743년 편찬

<sup>53</sup> 정은우, 「나말여초 건칠불상의 제작기법과 시원 연구」, 『미술사연구』 34-35호 (미술사연구회, 2018), p. 22.

<sup>54</sup> 김석주(1634-1684年), 『息庵先生遺稿』 卷之十七, 啓辭, 請禁屠肆啓, “當初屠肆之許開。若爲都監髹漆之用。則骨灰之滌落滓穢。不合於陳器諸具。上年遷陵。董事諸臣。皆已目見而知之。此正通變務爲潔淨之不暇。以此弛禁。誠亦不可。而況國哀在殯。民耕方急。以禮以政。俱所當禁。當連年疫死之餘。揀遺畜宰殺之弊。至於皮筋一切之用。姑待日後蕃息有未晚也。而今因申戒之請。遂成永久之式。由禁爲勸。事尤寒心。請自今屠牛。申明禁斷。” 이이순(1754-1832年), 『後溪集』 卷之五, 雜著, 喪葬儀節, 治棺 “內外皆用灰漆。內仍用瀝青溶瀉。厚半寸以上。以練熟秬米灰。鋪其底。厚四寸許。周尺。加七星板底四隅。各釘大鐵環。動則以大索貫而舉之。灰漆骨灰和漆也。久則堅硬如石。或以用骨爲嫌。而喪大記。有牛骨錯琢之文。苟利於死者。古人已不嫌矣。”

<sup>55</sup> 『新補受教輯錄』, 禮典, 雜令, 國恤時, 都監所用... “國恤時, 都監所用床·卓等物中, 用骨灰者, 亦多, 依前例, 屠肆五坐許設。”

“국상의 장례 전에, 도감이 마련하는 제상과 향상 등의 물건은 다수 골회를 사용한다. 현방 5곳을 설치하도록 허락하였다.”<sup>56</sup>

『續大典』,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1746년 편찬

“국장 시 현방 5곳의 설립을 허가한다. 숙종 56년에 도감낭청에서는 총호사가 계하여 말하기를 무릇 국장은 줄곡이 되기 전에 도살을 금하는데, <오례의>의 조문에 적혀있다. 이에 따라 제상과 향상 등 물품에는 골회를 사용하고 현방은 정해진 날에 설립하도록 허가한다. 또한 전례가 있어 지금의 도감은 전례에 의거하여 현방 5곳의 설치를 형조, 한성부, 사헌부가 나누어 맡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sup>57</sup>

『秋官志』, 秋官志卷之九, 掌禁部, 法禁, 牛馬屠殺, 國葬時許開五肆, 1781년 私撰

“국장 때 인산(因山) 전에는 도감(都監)의 상탁(牀卓) 등의 물건에 골회(骨灰)가 많이 사용되므로 5곳의 도사(屠肆 도살장) 설치를 허락한다.”<sup>58</sup>

『大典通編』,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1785년 편찬

“소를 도살하는 현방은 속전을 거두어 성내에 20곳을 두고 성 밖과 경강에 각 1처씩을 설치하고 매처에 매일 소 1마리를 도살한다. (중략) 도감의 제상과 향탁 등은 골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5곳의 현방의 설치를 허락한다. 양도, 수원, 광주 등의 읍과 다른 도에서 부득이 하게 현방의 설립 허락을 구하면 5일마다 소 1마리씩을 도살하며, 위반하면 궁장으로 죄를 엄중하게 논한다.”<sup>59</sup>

『典律通補』, 刑典, 雜令, [屠牛懸房] 1786년 편찬

<sup>56</sup> 『續大典』,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國恤因山前, 都監牀卓等物, 多用骨灰, 屠肆五坐, 許設。”

<sup>57</sup> 『秋官志』, 秋官志卷之九, 掌禁部, 法禁, 牛馬屠殺, 國葬時許開五肆 “國葬時許開五肆 肅宗四十六年,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凡國恤卒哭前禁屠, 載在《五禮儀》, 而因牀卓等物所用骨灰, 屠肆, 定日許設, 亦有前例. 今此都監, 依前例, 屠肆五坐許設之意, 分付刑曹·漢城府·司憲府, 何如?” 依允.”

<sup>58</sup> 『大典通編』,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國恤因山前, 都監牀卓等物, 多用骨灰, 屠肆五坐, 許設.”

<sup>59</sup> 『典律通補』, 刑典, 雜令, [屠牛懸房] “屠牛懸房, 收贖錢. 城內二十處, 城外及京江各一處, 每處每日屠一牛, (中略) 都監牀卓用骨灰, 五肆許設. ○兩都·水原·廣州等邑及他道, 不得不許屠處, 五日屠一牛, 違越官長重論.”

“국상 시 났을 때 인산(因山)[장례] 전에 도감(都監)에서는 제상(祭床)[牀]과 향로(香爐)를 올려 놓는 탁자 등 물건에 골회(骨灰)를 많이 쓰고 있으므로 푸줏간(屠肆)을 다섯 곳에 설치함을 허락한다.”<sup>60</sup>

『大典會通』,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1865년 편찬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新補受教輯錄』, 『增補典錄通考』,<sup>61</sup> 『典律通補』, 『秋官志』의 기록을 종합하면, 도감이 국상 시 조성하는 제상과 향상에 적용될 골회의 마련을 위해 ‘소를 도축하는 현방’ 설치를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제서에 수록된 점은 당시 도감이 현방을 통해 골회를 마련하는 수급체제의 관례화를 가늠케 한다. 『典律通補』에서 소를 도축하는 현방은 매처에 매일 소 1마리를 도축하며, 도감의 제상과 향상 등은 골회를 사용하도록 5곳의 현방 설치를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골회의 재료는 소 뼈로 추측 가능하다.

의궤, 실록, 승정원일기에서도 골회의 재료와 도감에서 의례용 상탁과 귀함을 조성하는데 쓰이는 골회를 현방(屠肆)에서 마련한 절차가 확인된다. 현종 15년(1674년)에는 소 역병으로 골회의 마련이 곤란한 상황을 다룬 기록도 있다.<sup>62</sup>

“간원이 아뢰기를,

“도감이 골회(骨灰)를 쓰기 위하여 소 도축을 허락했는데, 신들은 이점에 대하여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지난해 우역(牛疫)이 지나간 후로 새끼 번식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농업을 중히 여기는 방법으로서 그를 엄금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할 것인데 도살을 허락해서 될 일입니까. 더구나 국상 때는 도살을 금하는 것이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골회를 구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취한 조치였다면 당당한 국가로서 어찌 그에 필요한 몇 마리의 소를 변통 못하고 곧바로 도살을 허가한다는 말입니까.”하니, 상이 따르지 않다가 세 번을 아뢰자 답하기를,

“줄꼭 때까지만 하고 정파하도록 하라.”하였다.

이 때 우의정 김수흥이 전례에 의하여 도사(屠肆) 열 곳을 허가해줄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간원이 이같은 논의를 한 것인데, 그 후로도 군기(軍器)를 만드는데 있어 소가죽과 힘줄을 구하

<sup>60</sup> 『大典會通』, 禮典, 雜令, 國恤因山前, “國恤因山前, 都監牀卓等物, 多用骨灰, 屠肆五坐, 許設.”

<sup>61</sup> 『增補典錄通考』, 禮典, 雜令, 《新補受教》 “國恤時, 都監所用床·卓等物中, 骨灰者, 亦多, 依前例, 屠肆五許設.”

<sup>62</sup> 『승정원일기』 239책, 현종 15년(1674년) 4월 3일 정유 11/12 기사

기가 어렵다고 연석에서 아뢴 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이 선뜻 듣지 않은 것이다.”<sup>63</sup>

『현종개수실록』28권, 현종 15년 4월 3일 丁酉 1번째기사

기록에서 골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 도축을 허락하였다는 점과 소 역병을 거쳤기 때문에 소 도축에 대하여 참작을 요청한 것, 연석에서 소 가죽과 힘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제안으로 인하여 도사 열 곳이 허가되었다는 견해가 드러난다. 골회와 소 도축(屠牛), 소 역병(牛疫), 소 가죽 및 힘줄의 관련성으로 골회는 재료는 소의 뺏가루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명성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는 직접적으로 ‘屠牛骨灰’라고 명시하고 있다.

“殿內 내 排設에 소용되는 牀函 등에 着漆하는데 所入되는 골회로 하여금 五部를 進排하는 일은 이미 手本하였다. 마을에서 屠肆하지 않는 탓으로 奉常寺에서 造脯를 始役한 후 가져다 썼다. (중략) 奉常寺에서 소를 屠牛하여도 骨灰를 本寺 아닌 곳에서 물건을 들이라고 하오며, 생뺏도 自本所에서 찾아서 가져오라고 하오되, 또 自本所가 아닌 곳에 대해 取用하는 일이므로 奉常寺에 재차 分부하였다.”<sup>64</sup>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4年

상과 함(牀函)에 칠(着漆)하는데 소용되는 골회를 소를 도축하여(屠牛骨灰) 마련하는 흐름에서 골회의 재료는 소뺏으로 파악된다. 골회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산출량을 고려해보아도 다른 동물보다는 소의 뼈가 적절해 보인다. 골격 성장을 마친 소의 대퇴골 크기가 너비: 37.8, 길이: 13.1, 높이: 12.9cm 정도이고,<sup>65</sup> 돼지의 대퇴골 크기가 너비: 19.6, 길이: 7, 높이: 6cm 정도이다(도 5).<sup>66</sup> 전완골에서 척골만 측정하였을 때, 소가 너비: 37.5, 길이: 13.9, 높이가: 8.8cm이고, 돼지가 너비: 13.5, 길이: 4.4, 높이가: 2.9cm로 뼈 크기의 차이가 있다(도 6).

골회의 재료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자면, 소의 뼈를 소성(燒成)한 재료 추정된다. 문헌

<sup>63</sup> 『현종개수실록』28권, 현종 15년(1674년) 4월 3일 丁酉 1번째기사

<sup>64</sup> 一殿內排設所用牀函等着漆所入骨灰令五部進排事曾已手本爲有如今則間不爲屠肆乙仍于奉常寺造脯始役後取用事更爲定奪是乎等以言于奉常寺則雖爲屠牛骨灰則非本寺所納之物是如爲乎於生骨段置自本所推去亦爲乎矣亦非自本所直爲取用事是去乎奉常寺良中更良分付何如事總護使手決內令戶曹進排

<sup>65</sup> 소의(뼈)골격은 12개월령 전후에 발육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0개월령 도축된 소의 뼈를 측정하였다.

<sup>66</sup> 돼지는 생후 3-4개월까지(뼈)골격이 발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6개월령 도축된 돼지의 뼈를 측정하였다.



도 5 (左) 소 대퇴골, W: D: 13.1, H: 12.9cm (右) 돼지 대퇴골, W: 19.6, D: 7, H: 6cm



도 6 (左) 소 전완골, 척골, W: 37.5, D: 13.9, H: 8.8cm (右) 돼지 전완골, W: 13.5, D: 4.4, H: 2.9cm

에서는 가루로 된 재료에 대하여 ‘말(末)’과 ‘회(灰)’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분말 상태의 재료를 膠末, 太末, 眞末 등으로 기술하고, 소성을 거친 것은 石灰, 蒿灰, 炭灰로 적혀있다. 제작기술적 관점에서도 소성하지 않은 소의 뼈는 5일 이상 끓여도 기름이 배출될 정도로 유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않고 가루를 내어 옷칠

과 섞으면 칠의 경화에 지장을 준다. 유분이 많으면 재료 자체의 탄성이 높아서 뼈를 제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습기가 조성되면 구더기가 증식하여서 소성하지 않은 뼈는 관리하기에 까다롭다. 더하여 골회를 만들기 위한 소성 온도는 800℃ 이상으로 생각된다. 칠기 유물의 바탕 칠층을 관찰한 기존 연구에서 골회의 색상을 유백색으로 분석하였다. 소 뼈는 소성을 시작하면 검정색으로 그을려졌다가 500℃를 지나면 점점 회색을 띄고(도 7), 800℃ 이상에서 백색이 나타나고 1000℃가 넘어야 유기물이 제거된다(도 8). 이와 같은 요인으로 칠기 제작에 소용된 골회는 800℃ 이상 소성한 소뼈의 재료 판단된다.



도 7 400-500℃ 소성한골회



도 8 1000℃ 소성한골회

골회가 漆器의 제작에 쓰였던 사실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감에서 의례용 상과 함의 ‘着漆’에 골회가 소용된다 하였고, 도감이 ‘휴칠(髹漆: 옷칠)’할 때 골회를 사용하기 위해 현

방을 허가한다는 기록에서 골회의 용처(用處)는 칠기(漆器)의 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7</sup>

“승정원의 계, 청하여 신명규와 이정기등 1률에 해당하는 죄의 논단의 명을 거두어 들이고  
 임금을 아뢰어 글어 엮는다. 당초에 현방을 허락하여 열어, 髹漆을 하는 도감이 이용하게 했  
 다...”<sup>68</sup>

『승정원일기』239책 (탈초본 12책), 현종 15년(1674) 4월 8일 임인 15/33 기사

결정적으로, 도감에서 관장하는 의례를 기록하는 의궤에서 물품(牀, 櫃, 函) 조성에 골  
 회가 所入된 기록을 제외하면, 도감에서 골회를 수급받아 사용(所用)한 장인은 ‘漆匠’이 유일  
 하였다(도 9).<sup>69</sup>

“품목질(稟目秩)

칠장(漆匠)에게 필요한 물품

연일산 솥돌 1편. 염소 수염[羔鬚] 1냥. 콩가루[太末] 4되. 골회(骨灰) 2말.  
 방구리 7개. 수건 베[手布] 4자. 수건 명주[手巾紬] 2자. 보통 솜 15냥. 말총  
 체[馬尾篩] 1부(部). 비단체[綃篩] 1부. 송탄(松炭) 1말. 송연(松烟) 3냥.  
 찌꺼기 거르는 모시[去滓苧布] 5자. 고임목[高音木] 4개. 칠틀[漆機] 10  
 개.(중략)”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일방 의궤(一房儀軌), 건륭 24년 기묘(1759,  
 영조35) 6월



도 9 『英祖貞純王后  
 嘉禮都監儀軌』, 一  
 房儀軌-己卯五月日

“품목질(稟目秩)

칠장(漆匠)에게 필요한 물품

참기름 1되 3홉. 길레용 베 9자. 풀솜[雪綿子] 10냥. 콩가루[太末] 1말. 숯가루[炭末] 2되. 수건용

<sup>67</sup> 『승정원일기』239책, 현종 15년(1674년) 4월 8일 임인 15/33 기사; 『승정원일기』675책, 영조 4년 무신(1728) 12월 4일 경진 기사.

<sup>68</sup> 院啓, 請選收申命圭·李鼎基等一罪論斷之命.措辭見上 當初屬肆之計開, 蓋爲都監髹漆之用, 而骨灰之滌落滓穢, 不合於陳器諸具.

<sup>69</sup> 『肅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一房所掌-丙午二月初七日, 一爲行下事漆匠所用骨灰再鍊次馬尾細篩一用後還下次以該司良中進排事捧甘爲只爲堂上手決內依…”

베 4자. 연일산 솟돌 2괴. 센 솟돌[強礪石] 1괴. (중략)집돼지 털 5냥. 골회(骨灰) 6말. 염소 수염 [羔鬚] 1냥. 빈 섬 20냥.”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이방의궤(二房儀軌), 건륭 24년 기묘(1759, 영조35) 6월

소개한 문헌을 토대로 칠장(漆匠)의 골회 수급체계를 추정하면, 골회는 屠肆(현방)의 개방 허락(許開)을 통해 마련하여 도감에서 취합하고, 도감이 칠장에게 상탁과 궤함을 칠하기 위한 재료로 골회를 배당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더불어 칠장이 칠기 제작에 적용하던 골회의 재료가 소의 뼈였다는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기까지 남아있는 기록 자료에 따르면 골회의 구성재료 변화는 1929년 즈음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전후로 칠기의 제작 재료와 기술은 대체될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칠기는 제작에 필요한 재료인 옷칠과 나전패의 수납일체를 나라에서 전적으로 관장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칠기는 18세기 전반까지 왕실 嘉禮時의 婚物이나 지배층의 일상적인 사치품 또는 厚葬風俗에 의한 明器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고급품이었다.<sup>70</sup>

하지만 18세기를 전후하여 생산체제의 중심을 이루어 왔던 관청수공업이 왕실재정과 중앙집권력의 약화로 인해 와해되면서, 민간 수공업체제의 형성, 발전으로 새로운 민간 부유층이 형성되었다.<sup>71</sup> 이러한 추이에 따라 서민이 경제력을 지니고 수요욕구가 상승되면서 칠기를 포함한 고급 공예품 수요층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다.<sup>72</sup> 이 시기의 칠기는 새롭게 대두된 민간 수요층의 취향을 수렴하였으나 증가된 수요를 감당해낼 생산방식의 혁신이 뒤따라지 못하여 품질이 퇴행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sup>73</sup>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시대 칠장은 관영 수공업 체제를 벗어나며 칠기 제작에 사용해왔던 골회의 마련이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변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칠기제작은 단시일에 습득하기 어려운 제작기술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수요로 자연히 재료의 개량을 모색해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sup>74</sup>

70 註 18 참조.

71 註 37 참조.

72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12월 3일 경진 기사.

73 『승정원일기』 129책, 효종 4년(1653년) 10월 30일 조.

74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8월 28일 조; 『大典通編』 卷6, 工典 工匠條 (법제처, 1963), p. 700.

## 2. 나전칠기 제작기술과 골회

### 1) 조선 나전칠기 제작기술의 특징과 골회

공예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변화는 제작기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골회의 구성재료가 변용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대기 전후로 칠기 제작기술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근대기 이전,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골회가 나전칠기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로 강조되어 있다. 숙종이 즉위한 갑인년(甲寅年), 『顯宗國葬都監都廳儀軌』에서 궤함 등의 물건에는 생칠을 바르도록 이미 논의하여 결정되었는데, 나전으로 조성하는 소함은 골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려워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하는 품목에 총호사(總護使) 수결에 의거하여 골회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소함은 나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법식으로 하오며 남은 궤함 등의 물건은 모두 소나무 판자로 만든다. 또한 생칠을 바르는 일은 이미 논의하여 결정하고 소함도 동일한데 만약 골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렵다...”<sup>75</sup>

『顯宗國葬都監都廳儀軌』, 肅宗(1674), 甲寅

이후 각 년마다의 전례를 참고하여 나전소함만 골회를 사용하여 조성하였으며,<sup>76</sup> 『정성왕 후국장도감의궤』 발행에 이르러서는 나전함을 법례(則例)에 따라 골회로 메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첩과 소함을 갑인년 등록에서 취고하여 소첩을 제작하고 소함은 소첩견양조성에 의거하오되, 각양궤함은 생칠로 칠하오며, 소함은 나전으로 조성하는데, 골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려우므로, 갑인년 가을 등록에서 결정한 바대로 조성하므로써 소함은 골회를 사용

<sup>75</sup> “梳函例以螺鈿造成爲乎矣他餘櫝函等物皆以松板造作亦着純漆事旣已定奪而同梳函若不用骨灰則難以造成...”

<sup>76</sup>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仁祖莊烈后]國葬都監都廳儀軌』, 『明聖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 『景宗國葬都監都廳儀軌』, 『肅宗國葬都監都廳儀軌』, 『端懿嬪禮葬都監儀軌』,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顯宗國葬都監都廳儀軌』, 『貞聖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肅宗國葬都監都廳儀軌』, 『仁元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 『景宗國葬都監都廳儀軌』, 『貞聖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孝章世子禮葬都監[二房]儀軌』, 『肅宗國葬都監儀軌』, 『顯宗國葬都監都廳儀軌』 등.

하고 남은 궤함은 생칠을 취용했다 한다. 이번에도 이처럼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sup>77</sup>

『仁顯王后國葬都監儀軌』, 숙종27(1701년), -辛巳八月十九日

“본방 차지는 각양 궤함을 모두 생칠로 칠하는 일을 결정한 이후에 소함의 법식에 이르러 나전으로 조성하는 하는데 골회를 취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사, 무술, 경자년 3년의 등록에 서도 소함은 모두 골회를 사용했다 한다. 이번에도 나전소함은 골회를 사용하기로 한다. 당상의 수결에 의거하여 경자년 법식대로 거행한다.”<sup>78</sup>

『景宗國葬都監都廳儀軌』, 英祖(1724년), 甲辰

“각 년 등록을 취고하여 각양 궤함은 모두 생칠로 하고 나전소함은 법례에 따라 골회로 메우고 칠을 바른 연후에 견고하고 정히하므로 이전에 정한대로 이번에도 역시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으로 한다. 당상수결에 의거하여 품목한다.”<sup>79</sup>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 영조33(1757년)

나전칠기 제작에서 골회의 역할은 기면(器面) 위에 자개를 부착하면, 패(貝)의 두께로 생기는 요철을 고르고 평평하게 메워 자개의 탈락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충전재(充填材)로 골회 외 토분과 목탄분도 기능하는데, 조선시대에는 골회가 없으면 나전칠기 조성이 어렵다고 여겼다. 조선 나전칠기 제작 재료로 왜 골회가 선택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근현대 나전칠기와 비교되는 조선 나전칠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나전칠기의 실측조사 사례와 기록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은 자개의 두께와 자개를 부착하는 기면(器面)이었다.

조선시대 나전칠기 3점을 분석하고 수리한 논문「조선시대 나전칠기 수리」는 나전칠기의 자개 두께를 측정하고 자개를 부착한 바탕면을 관찰한 연구이다.<sup>80</sup> 조사한 세 점의 나전 유

77 一本房所掌膽錄出草次白紙五卷, 白休紙一斤, 白筆三柄, 眞墨二丁, 依膽錄進排事, 各該司良中, 捧甘, 何如? 堂上手決內, 依。一本房次知梳貼梳函, 取考庚申膽錄, 則以女梳貼造作而梳函段置, 依梳貼見樣造成爲乎旆, 各樣橫函段置, 以純漆着漆爲有矣, 梳函則以螺鈿造成, 故若不用骨灰則難以造成是如, 甲寅秋膽錄, 榻前定奪, 梳函能用骨灰, 其餘橫函段, 以純漆取用是如爲有置。今亦依此用之, 何如?

78 一本房次知各樣橫函皆着純漆事定奪之後 至於梳函例以螺鈿造成之故骨灰定奪取用爲有旆辛巳戊戌庚子三膽錄段置梳函則皆用骨灰是置今番段置螺鈿梳函則用骨灰爲乎乙喻稟; 堂上手決內依庚子年例舉行

79 一取考各年膽錄則各樣橫函皆以純漆爲之而螺鈿梳函則例以填骨灰着漆然後堅固精好故自前定奪爲有置 今亦依此舉行爲乎乙喻稟 堂上手決內依稟

80 이용희, 「조선시대 나전칠기 수리」, 『보존과학회지』5 (1996), pp. 26-27.

물 중 ‘牡丹唐草紋螺鈿漆器函’에 대해서 감입된 자개의 두께는 0.8mm 내외로 측정하였고, 하지(바탕칠층)를 포함한 칠도막의 전체 두께는 0.64mm 정도로 분석하였다. 심바르기(베바르기) 공정을 거치지 않았고, 백골 위에 미리 먹선으로 문양을 도안하여 나전을 오려낸 후 나무 망치로 쳐서 바탕에 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칠도막 단면의 현미경관찰에서 단면의 최하부에는 미세한 불순물 입자들이 혼입된 층이 있고, 그 상부에 비교적 입자가 큰 골분과 약간의 광물입자가 혼입된 骨骸층(골회층)과 얇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2-3개의 상도층(上塗層)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雙鶴,雲,花紋螺鈿漆器箱子’에 대해서는 하지를 포함한 칠도막의 두께가 0.46mm 정도이며, 칠도막 단면의 현미경 조사결과 칠하지(바탕칠층)에는 다수의 골분입자가 혼입되어 있고, 그 상부에 2-3개의 상도칠층이 형성된 것으로 관찰하였다. 연구사례에서 조선시대 나전칠기에 사용된 자개의 두께가 0.46-0.8mm 내외였고, 백골소지 위에 바로 자개를 부착하였던 제작과정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칠기 유물의 분석연구는 대다수가 바탕칠층 구성재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통계치를 도출하기 어려우나 기록자료를 참고해볼 수 있다.

조선나전사에 대한 논문 「조선나전사(朝鮮之螺鈿社)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에서 조선 말기 나전칠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sup>81</sup> 조선나전사는 전성규와 조선칠공회부터 인연이 있어 왔던 기무라텐코가 일본 도야마현(富山縣) 다카오카시(高岡市)에 설립한 나전칠기 제작소이다. 조선나전사가 위치하였던 일본 다카오카(高岡)는 예로부터 칠기 생산으로 유명하며, 다카오카 칠기의 차별화된 특징은 나전 장식 기법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논문에는 현재 다카오카에서 나전칠기의 생산규모가 가장 큰 무사시가와 공방(武蔵川工房)의 무사시가와 요시노리(武蔵川義則)씨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조선 나전칠기에 사용되는 자개는 대략 0.3mm에서 0.4mm 정도로 두껍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기 어려운 반면, 다카오카 및 일본에서 사용하던 자개는 0.1mm의 얇은 박패이기 때문에 가위나 송곳, 작은 끌(鑿刀)로도 간단히 오려낼 수 있어 굳이 실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늘날의 작업에서도 실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다.<sup>82</sup> 조선 말기의 나전칠기에 대한 사례이지만, 당시 조선 자개와 일본 자개의 두께 차이가 있었던 정보를 참고해볼 수 있다.

더하여 1934년 발행된 『朝鮮商工獎勵館報』에서 조선 나전칠기의 개량에 대한 의견 가운데, “조선에서 원패를 가공할 공장이 없어 일본에서 가공해서 다시 조선으로 들여오고, 자개

<sup>81</sup> 노유니아, 「조선나전사(朝鮮之螺鈿社)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 49(2016), p. 123.

<sup>82</sup> 노유니아, 앞의 논문, p. 134.

두께도 조선 것이 훨씬 두꺼워 칠을 7,8번 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sup>83</sup> 이상의 자료를 참고하면 조선의 자개 두께가 일본의 자개 두께보다 상대적으로 두꺼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선 나전칠기의 제작 특징을 토대로 재료별 물성을 실험하여 골회의 재료 변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골회와 고래의 재료별 물성 실험

실험 목적은 칠장의 골회와 무형 문화재의 고래에 대한 물성을 파악하여 나전칠기 제작 기술과 골회의 연계성을 이해하는데 두었다. 실험 범위는 한국 칠기의 분석 연구로 규명된 바탕층 종류를 참고하여(표 1), 실험 대상을 골회와 옷을 혼합한 A시료, (목)탄분과 옷을 혼합한 B시료, 토분과 옷을 혼합한 C시료로 설정하였다. 추가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등장하는 토분과 옷과 풀을 혼합하는 D시료도 포함하였다. 漆層 분석 사례(표 1)에서 확인되듯이 골분과 탄분은 토분과 혼합한 용례가 다수이지만, 본 실험은 각 재료별로 두드러지는 물성 파악이 목적이므로 토분과 혼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실험 방법은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한 각 시험편을 연마도와 경화속도, (경화시) 표면 균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마도 실험은 나전칠기 제작에서 바탕칠층을 물(수분)을 주어가면서 솥돌로 골고루 연마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제작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sup>84</sup> 그리고 균열도와 경화속도 실험을 통해 나전칠기 제작에 쓰이는 자개가 두꺼울 경우, 패의 단층면을 메우기 위해 바탕칠층을 두텁게 올려도 표면 균열 없이 경화되는 경과를 확인해보았다.

시험편의 혼합 비율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기록도서를 참고하였으며(표 3), 혼합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골회와 옷의 혼합비율은 나머지 시험편과 물성(점도 및 밀도)이 유사한 골회50:옷50의 비율로 진행하였다. 부피비는 1Ts(15ml)을 기준으로 계량하여 제작하였다. 첨가된 골회분, 토분, 목탄분은 동일한 규격의 체(Testing Sieve No.35, 500 $\mu$ m)로 거른 후 사용하였다. 골회는 소뼈를 1000 $^{\circ}$ C 이상으로 소성하여 쇠절구에 빻아서 마련하였고(도 10), 목탄분은 참나무 숯가루, 토분은 황토를 이용하였다.

<sup>83</sup> 朝鮮商品調査研究會, 『朝鮮商工獎勵館報』2(朝鮮商品調査研究會, 1934), p. 11.

<sup>84</sup>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2(문화재관리국, 1965), p. 529.

〈 표 3 〉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기록도서 바탕칠 재료혼합 비율

조사자료			시험편 구분
자료명	조사대상	바탕칠 혼합비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집	제11호 '나전칠기장'	토분45:옷50:풀5	D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14집	제104호 '끊음질'	토분45:옷45:풀10	D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15집	제126호 '나전장'(中끊음질)	숫가루:부레풀, 옷칠	-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1집	제195호 '나전장'	토분45:옷50:풀5	D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2집	제198호 '칠기능'	황토:옷	C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2집	제205호 '나전칠기제작기능'	토분45:옷50:풀5	D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2집	제206호 '나전칠기제작기능'	와분:옷:물	-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4집	제229호 '칠장'	탄분:옷:참쌀가루	-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24집	제229호 '칠장'	토분:옷	C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0호 '나전장'끊음질 보유자	토분:옷	C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0호 '나전장'주름질 보유자	토분50:옷50	C

(i) 연마도 실험 결과

연마도 실험은 A, B, C, D 시료를 각각의 비율로 혼합하고, 가로세로 30mm×30mm와 깊이 2mm 크기로 제작한 시험판에 균분하였다(도 11, 12). 시험판의 시료가 완전히 경화 된 후 수분을 머금은 #800 숫돌로 동일한 하중을 가하여 30회 왕복 연마하였다(도 13, 14). 연마한 각 시료의 모서리 4곳의 연마된 깊이를 측정하고 평균 내어 비교하였다(도 15, 16)(표 5).



도 10 곱회를 쇠절구로 뺏아서 제분

〈 표 4 〉 시료별 연마도

시료구분	재료 혼합비율	잔존 시료 높이(mm)	연마 깊이(mm)
A	곱회 50 : 옷 50	1.7	0.3
B	탄분 50 : 옷 50	1.5	0.5
C	토분 50 : 옷 50	0.4	1.6
D	토분 45 : 옷 50 : 풀 5	0.6	1.4

〈 표 5 〉 골회와 고래의 연마도 실험 비교

A시료 골회+옷			
	도 11 시료매립(연마전)	도 13 슷돌연마	도 15 연마후
C시료 토분+옷			
	도 12 시료매립(연마전)	도 14 슷돌연마	도 16 연마후

연마도 실험 결과(표 4), 골회와 옷이 혼합된 A시료가 연마된 깊이 0.3mm에 연마된 면의 본래의 시료가 1.7mm로 가장 많이 남아있었고, 상대적으로 토분과 옷을 섞은 C시료는 연마 깊이가 1.4mm, 남은 시료의 높이 0.6mm로 연마도가 높았다. A, B시료가 연마시 물 흡수가 적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반면, 토분과 옷을 섞은 C시료는 물 흡수가 많아서 광물이 빠져나가며 형체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현상을 보였다(표 5). 골회와 옷이 혼합된 A시료의 특성은 나전칠기 제작과정에서 자개를 부착한 바탕칠층 연마시 자개가 탈락되지 않게 지지해주는 장점이 된다.

## (2) 경화속도 및 표면균열도 실험 결과

경화속도와 표면균열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 가로세로 30mm×30mm 크기에, 깊이 0.5, 1, 1.5, 2, 2.5, 3, 3.5, 4, 4.5, 5mm의 차이를 두어 제작한 시험판에 A, B, C, D 시료를 매립하고(도 17), 칠장의 온도 23.9℃, 습도 71% 조건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경화속도는 6시간마다 표면관찰과 지축건조 확인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료 상태를 검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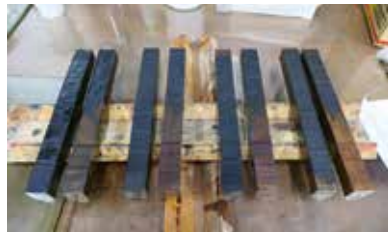
〈 표 6 〉 시료별 표면균열도 및 경화속도

시료구분	A					B					C					D				
재료혼합비	골회 50: 옷 50					탄분 50: 옷 50					토분 50: 옷 50					토분 45: 옷 50: 풀 5				
깊이(mm)	0.5-1	1.5-2	2.5-3	3.5-4	4.5-5	0.5-1	1.5-2	2.5-3	3.5-4	4.5-5	0.5-1	1.5-2	2.5-3	3.5-4	4.5-5	0.5-1	1.5-2	2.5-3	3.5-4	4.5-5
표면균열	無	無	有	有	有	無	無	無	有	有	有	有	有	有	有	無	無	有	有	有
경화시간	12	18	24	30	54	12	12	18	36	54	6	12	18	24	36	12	18	24	30	54

경화속도를 비교한 결과(표 6), 0.5~1mm깊이 시험판에 균분한 시료 가운데 토분과 옷을 혼합한 C시료가 6시간 내 경화되었고, A, B, D 시편의 0.5~1mm 깊이 시료가 12시간 내 굳어졌다. 표면 균열도 관찰 결과(표 6), A, B시료가 0.5~2mm 깊이에서는 균열없이 경화하였고, 3mm 깊이부터 표면균열이 일어났으며, C시료는 가장 얇은 0.5mm 깊이에서부터, D시료는 2mm부터 표면 균열이 나타났다(도 18). C시료는 A, B, D시료보다 경화속도가 빨랐으나, 경화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표면균열이 커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도 19). 경화 실험을 통해 바탕 칠층을 두껍게 올렸을 때 균열없는 기면(器面)이 형성 가능한 재료의 우선순은 골회 및 탄분, 다음으로 토분과 풀, 마지막으로 토분과 옷을 혼합한 순서로 확인되었다.



도 17 시험판 제작 W: 30mm, D: 30mm, H: 0.5, 1, 1.5, 2, 2.5, 3, 3.5, 4, 4.5, 5mm



도 18 시료 (左부터 A, B, C, D 시료)



도 19 표면균열이 일어난 C 시료

### 3) 실험을 통해 본 재료별 특성과 나전칠기의 제작기술

실험을 통해 본 골회의 첫 번째 재료적 특성은 골회칠을 한 번에 두껍게 올려도 표면균열 없이 경화(硬化)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성이 나전칠기의 제작에서 발휘되는 장점은, 두꺼운 자개로 칠기를 장식할 때, 패의 두께로 생긴 요철을 골회칠로 한 번에 평평하게 메우는 공정에서 칠층의 표면균열을 염려하지 않고 작업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기 이후 얇은 자개를 통용하게 되면서 두께있는 칠을 올릴 필요가 없어졌고, 골회의 활용이 도태된 것으로 짐작된다. 근대 나전칠기의 자개 두께에 대해서 조사된 연구가 부족하여, 어느 시점부터 얇은 자개를 통용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록자료를 통해서 대략 193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통용되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는 있다. 1934년 발행된 『朝鮮商工獎勵館報』에서 “조선에서 원패를 가공할 공장이 없어 일본에서 가공해서 다시 조선으로

들여오고, 자개 두께도 조선 것이 훨씬 두꺼워 칠을 7,8번 칠해야 한다”고 수록되어 있다.<sup>85</sup> 그리고 1972년 조사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4집에서 “나전상감의 기법양식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製貝된 자개의 종류에 따라 우선 후패법과 박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sup>86</sup> 이어서 1978년 조사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5집의 전복껍질을 연마하는 제작과정에서 “옛날에는 가는 일을 전담한 기능공이 자개 공장 내에 따로 있어서 박패를 공급했다. 요즘에는 기계의 발달로 손으로 숫돌에 갈아쓰는 수고를 덜고 있으며 직업적으로 제작해 상품화하고 있다.”라는 해설에서 얇은 자개의 보편화 시기가 짐작된다.<sup>87</sup>

두 번째로 골회칠은 수분에 강하고 연마도가 낮은 재료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낮은 연마도는 나전칠기의 제작기술에서 효율성이 높게 발휘되는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나전칠기의 줄음질 기법은 바탕칠층을 물로 적셔서 숫돌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자개가 이동하거나 박락되면 수정작업 단계를 거쳐야 한다.<sup>88</sup> 골회의 수분에 강한 특성은 연마 시 자개를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수정작업 과정을 줄여준다. 이러한 골회의 효율성은 근대기에 아교와 호분 및 탄분을 섞거나, 구운 흙 등의 다양한 대체 재료가 출현하게 된 계기의 하나로 보인다. 나전칠기에 장식되는 자개의 두께가 얇아지면서부터는, 기물 표면에 자개를 부착하여도 요철이 적기 때문에 고래를 바르고 연마하는 공정은 생략되기도 한다.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서도 줄음질 기법은 자개를 부착한 후 고래를 바르지 않고 바로 옷칠로 마감한다. 두께가 얇은 자개가 통용되고, 나전칠기 제작과정에서 자개를 붙인 이후 옷칠만으로 표면을 마무리하게 되면, 바탕칠층을 물로 적서 가며 숫돌로 연마하는 단계와 박락되는 자개의 수정 작업도 없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나전칠기 제작과정에서 바탕칠층을 물로 적서 연마할 때 자개가 탈락되지 않게 지지하여주는 강점을 가진 골회의 사용이 줄어들고 찾지 않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 3. 근대기 무형문화재의 활동

전통 공예기술의 전수가 도제식 전승체계로 이루어지는 경향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칠

<sup>85</sup> 註83 참조.

<sup>86</sup>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4(문화재관리국, 1972), p.549.

<sup>87</sup>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5(문화재관리국, 1978), p.894.

<sup>88</sup>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2(문화재관리국, 1965), p.530.

기 제작기술은 전수계보에서 초두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도 20). 무형문화재 제도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정 보호 및 관리되고 있다. 칠기 제작기술 전승과 관련하여서는 1965년 김봉룡(1903-1994) 장인이 최초로 나전칠기장 무형문화재 제 10호로 기능 보유자에 인정되었다. 1972년과



도 20 무형문화재 나전장 및 칠장 사승 관계도

1978년에는 나전칠기의 주요 기법인 줄음질과 끊음질로 분리하여 중요문화재 제54호 끊음질을 지정하였다.<sup>89</sup> 끊음질 기능 보유자로는 송주안(宋周安, 1901-1981) 장인과 심부길(沈富吉, 1906-1996) 장인이 인정되었다. 초창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봉룡, 송주안, 심부길 장인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활동하였던 기간은 일본의 실질적인 내정 간섭이 있었던 일제강점기였음을 알 수 있다. 공예품의 재료는 기물을 제작하는 장인이 구성하며, 구성 재료를 취택하는 기준은 장인이 활동하는 사회적 배경과 상호 유기성을 갖는다. 근대기 골회의 재료가 변용된 요인이 무형문화재 장인이 활동하던 특수한 여건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18년 김봉룡과 송주안은 청패세공 장인 박정수(朴貞洙)<sup>90</sup> 문하에서 입문하고, 통영군립공업전습소에 입사하여 스승 전성규를 만나 사사 받는다.<sup>91</sup> 통영군립공업전습소는 일본이 한일합방 후 통영 나전칠기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된 옛 통제영 시설을 그들의 경제영역으로 편입시키며 설립한 곳이었다.<sup>92</sup> 이곳에서 전성규, 김봉룡을 비롯한 장인들이 이

<sup>89</sup> 줄음질은 나전패를 가위나 칼, 실패 등으로 문양대로 오려서 칠 표면에 붙이는 기법이고, 끊음질은 나전패를 실패로 얇고 가는 상사로 만들어 문양대로 끊어가며 붙이는 기법이다.

<sup>90</sup> 통영나전장인 엄항주의 문하생으로 1914년 통영면 서부동에서 청패세공장을 운영하였다. 김일룡, 「통영나전칠기 역사」, 『통영문화』12(통영문화원, 2011), p.25.

<sup>91</sup>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2(문화재관리국, 1965), p.530.

<sup>92</sup> 차철욱, 「전근대 군사도시에서 근대 식민도시로의 변화-경남 통영의 사례」, 『한일관계사연구』Vol.48(한일관계사

왕직미술품제작소로 징발되어 가기도 하였다.<sup>93</sup> 근대기 무형문화재의 활동에서 통영군립공업전습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915년 『부산일보』의 〈통영 나전칠기 ; 공업전습소의 도제 양성〉 기사에서 나전칠기의 재료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sup>94</sup> 기사에서는 동 전습소의 실업교사인 가지요시 소우가 “본 전습소에서는 고대의 정취가 풍부하고 정교한 나전칠기 복고로도 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발굴한 나전칠기가 노토(能登)의 와지마누리(輪島塗, わじまぬり)<sup>95</sup>와 흡사하고, 와지마누리가 견고하다는 평을 받는 것은 양질의 砥粉 산지이기 때문이며, 본인이 부임한 이후로 砥粉 우량산지를 통영에서 발견하여 실험을 해보았고 월등함을 확인하였다”고 인터뷰하였다. 통영군립공업전습소 도제 양성에 대한 기사에 등장한 砥粉(とのこ)는 일본 칠기(漆器)의 바탕칠(下地)에 쓰이는 재료이며 찰흙을 태워서 만든 가루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전습소에서는 흙을 태워서 만드는 砥粉으로 칠기 제작이 교육되고 입사생들이 실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김봉룡 무형문화재의 조사보고서에서 고래의 재료를 “황토를 작열하는 불에다 구어” 사용하고 있어 연관을 갖는다.

이 시기 일본은 근대적 생산이 본격화된 1910년대부터 나전칠기를 수출품으로서 조성하기 위해 개량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1911년 발간된 『朝鮮産業志』에서는 통영군의 특산품인 나전칠기에 대해 수출품으로서 개량을 요한다는 기록이 있고,<sup>96</sup> 1917년에는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 부속의 공업전습소에 조선의 칠공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선칠공회에서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재료의 개량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1912은 조선총독부 관할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官制를 공포하며 각종 공업에 관한 시험 및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중앙시험소가 설립되었다.<sup>97</sup> 시험소는 연구 성과를 묶은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보고』를 간행하였는데, 나전칠기 개량 시험에 관한 보고서도 있다. 1929년 발행된 「나전칠기개량시험」 보고서의 요지는 조선 재래식 제법과 일본 내지식 제법을 비교하여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조선 나전칠기를 개량하는 제법의 제시였다. 개량의 기준은 나전칠기 제작에서 자개의 감입 및 칠 도막(塗膜)을

학회, 2014), p.313.

<sup>93</sup> 이경미, 「나전장인 김봉룡의 삶과 나전문양」, 『(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나전장 김봉룡의 도안』(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236.

<sup>94</sup> 『부산일보』, 「통영 나전칠기 ; 공업전습소의 도제 양성」, 1915년 9월 4일 기사.

<sup>95</sup> 石川県 북단에 있는 도시 輪島 특산의 칠기(沈金이 특징).

<sup>96</sup> 山口精, 『朝鮮産業志』下(民俗苑, 1992), pp.535-536.

<sup>97</sup>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一覽』36(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 1912), pp.1-3.

제거하는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었다.<sup>98</sup> 시험에서 드러난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 나전칠기에 대하여 제작 단가를 낮추고 생산 속도를 향상시켜 상품으로 개량하려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193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조선 나전칠기를 수출품으로 개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시도가 있었다. 1933년 조선총독부의 관료들과 경성의 상공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조선 공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상품조사연구회가 조선총독부 상공장려관 내 설치되었다.<sup>99</sup> 상품조사연구회는 조선 각지의 유지들을 모아 매월 연구회를 열고 월보『조선상공장려관보』를 발간하여<sup>100</sup> 1934년 1월 26일 개최한 회의에서 함양의 목기와 함께 조선의 나전칠기 개량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1</sup> 회의에서는 조선 나전칠기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생산체계의 통제와 생산비의 절감, 재료 가공의 기계화 등에 관한 사안을 다루었다. 회의에 참여한 조선총독부와 중앙시험소의 관료들의 의견은 나전칠기의 가격을 낮추어 대중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 이를 수출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1930년에 김봉룡은 스승 전성규의 공방에서 독립하여 ‘고대미술나전칠기공예소’를 설립하고,<sup>102</sup> 송주안은 일본 도야마현 다카오카시의 조선나전사에서 연구생으로 기술을 익히고 귀국한다. 그는 귀국 후 바로 일본인 하시다[橋田]가 운영하는 통영칠기제작소에 입사하여 1941년에는 제2공장장이 된다.<sup>103</sup> 심부길은 전성규가 설립한 칠공업예술연구소에서 1925년부터 문하생이 되어 도안법, 도장법, 상사 자르기와 부착법 및 문양 제작 등 나전칠기에 대한 기예를 배운다.<sup>104</sup>

1939년에는 송주안이 소속되었던 하시다[橋田] 나전칠기제작소에서 중일전쟁이 격화되며 맞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트럼프갑을 생산 및 수출하였다.<sup>105</sup> 해방 이후로는 1946년부터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산업 품목으로 나전칠기가 선정되

<sup>98</sup>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螺鈿漆器改良試驗」,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第11回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29), p. 16-19.

<sup>99</sup> 『동아일보』, 「商品調査研究會今日設立會」, 1933년 11월 30일 기사.

<sup>100</sup>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咸陽木器と螺鈿漆器の研究」, 『조선상공장려관보』 2 (朝鮮商品調査研究會, 1934), p. 11.

<sup>101</sup> 『매일신보』, 「商品調査研究會와 產品의 批判研究 螺鈿細工品改良問題를 論議 相當統制가 必要」, 1934년 1월 28일 기사.

<sup>102</sup>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 나전장 김봉룡의 도안』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 236.

<sup>103</sup> 송방웅, 「통영나전칠기공예의 회고」, 『통영나전칠기의 회고와 전망』 (통영여성포럼, 2011), p. 20.

<sup>104</sup>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기증/기탁 컬렉션, 故 심부길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 10호 나전장

<sup>105</sup> 『매일신보』, 「統營螺鈿漆器 海外로 販路開拓 “트럼프” 厘初出荷」, 1939년 11월 16일 기사.

고, 나전칠기의 생산과 기술향상을 위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sup>106</sup> 해외 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하였다.<sup>107</sup> 1965년에는 나전칠기 공장이 전국적으로 3백곳 이상이었고,<sup>108</sup>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나전칠기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정점에 도달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초창기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기술 입문부터 활동까지의 특수한 배경에서 고래를 재료로 취택하게 된 직간접적인 요인이 발견된다. 일본은 나전칠기 산업에 있어 1910년 전후부터 전통적인 공예기술을 산업적 근대화 흐름에 걸맞게 개량하고 다룰 자영수공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할 목적이 있었다. 지방에도 최소한의 기술습득을 속성으로 강습시키는 각종 공업전습소가 설치하였고, 지방의 특성에 따라 유망한 사업의 종류를 선택해서 세웠다. 이러한 전개에서 통영지역에도 나전세공실습소(공업전습소)가 설치되었고, 1918년 이후에는 일본인들에 의하여 제작소가 운영된다.<sup>109</sup> 이 시기 즈음에 김봉룡과 송주안 세대가 칠기 제작에 입문을 하고, 공업전습소의 도제양성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砥粉이 나전칠기의 재료로 소개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는 이전부터 개량을 시도하였던 나전칠기에 대한 상품 산업이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판로를 확보하여 수출품으로서의 길을 열었다.<sup>110</sup> 그 사이에 심부길은 전성규 문화에 입문을 하고, 김봉룡은 개인 공예소를 세웠고, 송주안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칠기제작소에 입사하였다.

특히,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맞춰져 있었던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산업 성장의 초점과 무형문화재가 선택한 고래의 재료적 특성은 일치한다. 앞서 골회와 고래의 재료별 실험에서 토분과 옷칠을 혼합한 고래는 연마도가 높고, 두꺼워지면 표면균열이 발생하지만, 경화속도가 제일 빨랐다(표 6). 옷칠의 경화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것은 칠기를 제작하는 작업속도가 빨라 생산력이 높은 강점이 된다. 칠기를 제작할 때 바탕칠층을 고래로 적용하면 동일하게 한정된 시간 내에서는 가장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토분을 재료로 하는 고래의 특성은 골회에 비해 재료 수급이 용이하여 칠기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칠기

<sup>106</sup> 『서울신문』 1946년 12월 29일 기사; 『자유신문』 1949년 12월 8일 기사; 『동아일보』 1949년 11월 7일 기사; 『동아일보』 1952년 11월 24일 기사

<sup>107</sup> 『동아일보』 1949년 11월 7일 기사; 『경향신문』 1956년 10월 18일 기사; 『동아일보』 1957년 10월 31일 기사; 『경향신문』 1966년 4월 13일 기사.

<sup>108</sup> 『경향신문』 1965년 4월 14일 기사.

<sup>109</sup> 하훈, 앞의 논문(2018), p. 385.

<sup>110</sup> 『동아일보』 1928년 10월 15일 기사.

제거하는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었다.<sup>98</sup> 시험에서 드러난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 나전칠기에 대하여 제작 단가를 낮추고 생산 속도를 향상시켜 상품으로 개량하려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193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조선 나전칠기를 수출품으로 개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시도가 있었다. 1933년 조선총독부의 관료들과 경성의 상공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조선 공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상품조사연구회가 조선총독부 상공장려관 내 설치되었다.<sup>99</sup> 상품조사연구회는 조선 각지의 유지들을 모아 매월 연구회를 열고 월보『조선상공장려관보』를 발간하여<sup>100</sup> 1934년 1월 26일 개최한 회의에서 함양의 목기와 함께 조선의 나전칠기 개량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1</sup> 회의에서는 조선 나전칠기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생산체계의 통제와 생산비의 절감, 재료 가공의 기계화 등에 관한 사안을 다루었다. 회의에 참여한 조선총독부와 중앙시험소의 관료들의 의견은 나전칠기의 가격을 낮추어 대중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 이를 수출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1930년에 김봉룡은 스승 전성규의 공방에서 독립하여 ‘고대미술나전칠기공예소’를 설립하고,<sup>102</sup> 송주안은 일본 도야마현 다카오카시의 조선나전사에서 연구생으로 기술을 익히고 귀국한다. 그는 귀국 후 바로 일본인 하시다[橋田]가 운영하는 통영칠기제작소에 입사하여 1941년에는 제2공장장이 된다.<sup>103</sup> 심부길은 전성규가 설립한 칠공업예술연구소에서 1925년부터 문하생이 되어 도안법, 도장법, 상사 자르기와 부착법 및 문양 제작 등 나전칠기에 대한 기예를 배운다.<sup>104</sup>

1939년에는 송주안이 소속되었던 하시다[橋田] 나전칠기제작소에서 중일전쟁이 격화되며 맞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트럼프갑을 생산 및 수출하였다.<sup>105</sup> 해방 이후로는 1946년부터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산업 품목으로 나전칠기가 선정되

<sup>98</sup>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螺鈿漆器改良試驗」,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第11回(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29), p. 16-19.

<sup>99</sup> 『동아일보』, 「商品調査研究會今日設立會」, 1933년 11월 30일 기사.

<sup>100</sup>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咸陽木器と螺鈿漆器の研究」, 『조선상공장려관보』2(朝鮮商品調査研究會, 1934), p. 11.

<sup>101</sup> 『매일신보』, 「商品調査研究會와 產品의 批判研究 螺鈿細工品改良問題를 論議 相當統制가 必要」, 1934년 1월 28일 기사.

<sup>102</sup>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 나전장 김봉룡의 도안』(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 236.

<sup>103</sup> 송방웅, 「통영나전칠기공예의 회고」, 『통영나전칠기의 회고와 전망』(통영여성포럼, 2011), p. 20.

<sup>104</sup>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기증/기탁 컬렉션, 故 심부길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 10호 나전장

<sup>105</sup> 『매일신보』, 「統營螺鈿漆器 海外로 販路開拓 “트럼프” 厘初出荷」, 1939년 11월 16일 기사.

를 붙인 이후 바로 칠을 올려 표면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수분에 강하고 연마도가 낮은 특성을 가진 골회는 도태된 배경으로 추측하였다.

셋째로 무형문화재의 계보에서 초두에 해당하는 장인들의 활동 시기는 칠기의 생산량 증대가 요구, 개발되던 일제강점기였고, 장인들이 재료를 취택하는 기준에 산업화되던 환경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초창기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기술 입문은 1917년부터 시작되고, 20년대에 수련기를 거쳐, 30년대 독자적인 활동을 나선다. 이 시기는 일본이 조선 칠기의 수출 판매를 목적으로 칠기 제작소를 운영하고, 생산 체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개량을 시도하였던 일제강점기였다. 특히, 통영군립공업전습소에서 구운 찰흙 ‘砥粉’을 전통 나전 칠기 재료로 교육 및 실습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서도 고래 재료로 ‘구운 흙’을 명시하여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결정적으로, 무형문화재가 선택한 고래의 재료 특성은 일제강점기 한국 칠기의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려던 기준에 상응하였다. 고래의 특성은 골회에 비해 재료 수급이 용이하여 칠기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경화속도가 빨라 생산력이 높은 강점이 있었다. 생산단가 절감과 노동시간 대비 많은 산출량은 산업화에서 ‘효율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대기 칠기 제작자 입장에서 재료를 선택하는 우선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덧붙여, 문헌을 통해 골회의 옛말은 회칠이며, 골회가 회칠보다 작은 범위의 개념이었던 용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칠보다 작은 범위의 개념이었던 골회가 회칠의 대체어로 자리하게 된 배경은 칠장이 골회의 사용 빈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추측해보았다. 골회의 재료별 실험을 통해서 옷과 혼합되는 재료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진전될 칠기 재료의 연구를 위해 회칠, 골회, 고래 등 용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공예품의 제작과 재료에 대한 연구는 기술의 전승을 도모하는 토대가 되며 전통적인 제작기법을 새로이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과 실험을 바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이 재료를 취택하는 기준과 사회적 배경을 함께 검토하여 공예 기술에 대한 분석의 폭을 넓혀보았다. 골회에 대하여 문헌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료가 조선 후기 집중되어 있고, 재료와 제작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칠기의 구성 재료를 대상으로 한 광학적 분석 조사 자료가 축적된다면 제작 기술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key words)\_회칠(灰漆/Ashes with lacquer), 골회(骨灰/Bone ashes), 고래(土灰漆/Clay with lacquer), 나전칠기

(螺鈿漆器/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제작기술(製作技術/Making technique)

■ 투고일 2019년 8월 31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10월 2일 ■

## 참고 문헌

### 1. 사료

『大典通編』  
『大典會通』  
『常變通攷』  
『續大典』  
『承政院日記』  
『新補受教輯錄』  
『日省錄』  
『典律通補』  
『朝鮮王朝實錄』  
『朝鮮王朝儀軌』  
『增補典錄通考』  
『度支志』  
『秋官志』  
『(蒹葭堂本)髹飾錄』

### 2. 한국어 문헌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_\_\_\_\_,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검토』, 『미술사연구』32, 2017.  
\_\_\_\_\_, 『나말여초 건칠불상의 제작기법과 시원 연구』, 『미술사연구』35, 2018.  
최공호, 『한국 근대나전칠기 연구』, 『미술사학연구』177, 1988.  
\_\_\_\_\_, 『金奉龍의 나전기술과 근대 공예적 성취』, 『미술사연구』32, 2017.  
\_\_\_\_\_, 『조선 전기 경공장의 기술 통제와 분업』, 『미술사논단』47, 2018.  
신 숙, 『통일신라 평탈공예 연구』, 『미술사학연구』242-243, 2004.  
\_\_\_\_\_, 『전통 공예기법의 단절과 계승-평문과 평탈, 그리고 나전』, 『무형유산』6, 2019.  
노유니아, 『조선나전사(朝鮮之螺鈿社)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49, 2016.  
이용희, 『조선시대 나전칠기 수리』, 『보존과학회지』5, 1996.  
차철욱, 『전근대 군사도시에서 근대 식민도시로의 변화-경남 통영의 사례』, 『한일관계사연구』48, 2014.

- 하훈, 「일제강점기 통영에서의 일본인 나전칠기 산업의 침투」, 『일본근대학연구』62, 2014.
- 工業試験所, 『工業試験所報告』第12回第7号, 1917, 1918.
- 東京工業試験所, 『東京工業試験所報告』第18回第8号, 東京工業試験所, 1924.
- 朝鮮總督府中央試験所, 「螺鈿漆器改良試験」, 『朝鮮總督府中央試験所報告』第11回, 1929.
- 中里壽克, 「古代漆下地の研究」, 『保存科学』24, 1985.
- 黄成·王世襄, 『髹飾録解説』, 文物出版社, 1983.
-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 문화재관리국, 1965.
- \_\_\_\_\_,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4, 문화재관리국, 1972.
- \_\_\_\_\_,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5, 문화재관리국, 1978.
- \_\_\_\_\_,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1, 문화재관리국, 1992.
- \_\_\_\_\_,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2, 문화재관리국, 1998.
- \_\_\_\_\_,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24, 문화재관리국, 1998.
-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민속원, 2006.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漆匠이 주로 사용하던 골회에서 근대 이후 칠기를 제작하는 무형문화재의 고래(골회)로 전수되며 구성재료가 변화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골회는 칠기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문헌기록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용례가 확인된다. 그러나 근대기를 전후하여 골회의 구성재료가 분화되며, 전통기술을 전승하는 무형문화재의 고래의 재료도 토분, 와분, 탄분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조선시대 漆匠의 골회와 무형문화재의 고래를 재료별로 실험하였고, 각각의 특성을 통해 근대기 이후 골회의 구성재료가 변용된 요인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첫째로 조선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관영 수공업 체제가 와해되면서 漆匠에게 골회의 수급이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둘째, 골회의 재료적 특성이 조선 나전칠기의 제작기술에는 효율성이 발휘되던 재료였으나 근대기 나전칠기 제작기술이 변화되면서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의 계보에서 초두에 해당하는 장인들의 활동 시기는 칠기의 생산량 증대가 요구, 개발되던 일제강점기였고, 장인들이 재료를 취택하는 기준에 산업화되던 환경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Bone Ashes and Its Cause

Lim, Seulyoung\*

During the Joseon period, bone ashes or golhoe were one of the primary materials used to protect and smoothen the surface of lacquerware. This substrate was gradually replaced by clay materials similarly called gorae in the modern period.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s of this transition. Scientific analysis and textual records testify that bone ashes served to be the essential substance of lacquerware throughout premodern Korean history from the Three Kingdoms to Joseon. However, aroun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period, lacquer artisans began to diversify formulas of bone ashes. Nowaday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nationally designated artisans who are obligated to maintain and transmit traditional crafts, use an array of materials including clay, clay ashes and charcoal ashes.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of bone ashes used by Joseon master craftsman and that of clay materials used by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ree factors prompted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lacquerware materials.

First, the disintegration of the system of official craftsmen, along with socio-economic changes of Joseon, obstructed the supply line of bone ashes in the late Joseon. Second, the modern technique of inlaying mother-of-pearl did not require bone ashes as the primary substance any more, although it was proven effective previously. Last, industrializ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led to increased demand in lacquerware, and therefore, artisans experimented with new technologies to meet such demand and selected substrates accordingly. These innovative artisans later became forefathers of the lineage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

\* Ph.D.stud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